



“언제까지 정부 눈치 보고 살 거냐”

11일 9차 중앙교섭 ... 노·사 이견 좁히지 못해

금속노조가 6월 12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회의실에서 9차 중앙교섭을 벌였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요구에 일부 문구를 추가한 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금속산업최저임금과 타임오프에 관한 안은 이번에도 내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지난 교섭에 제출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제시안 2항에 ‘여성 비율 유지’ 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지난 8차 교섭에서 노조가 ‘자칫 조합이 전환배치에 적극 협력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으니, 문구를 수정해달라’ 고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은 4차 제시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와 관련해 기존 제시안 금속산별협약 50조 1항에 ‘이주노동자’ 라는 주어를 추가하고, 2항으로 ‘회사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소·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정한 공제율을 벗어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를 추가 제시했다.

금속노조가 낸 2024년 산별교섭

요구 원안은 ‘회사는 숙소·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이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교섭에서 일괄제시안을 요구하고 오늘 교섭에 기대를 걸었는데, 여전히 핵심 내용들은 추후 제시하겠다고 한다” 라면서 “아쉽고 화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창열 위원장은 “수십 년 교섭 관행을 넘어야 한다” 라며 “언제까지 정부 눈치만 보고 살 거냐. 노사 자율로 해왔던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답을 달라” 라고 사용자 측의 결단을 요구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타임오프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근로시간면제 시정지시는 노조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음모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를 머뭇거리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 무력화에 협조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금속노조 중앙교섭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각종 현안에서 정부보다 먼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라며 “노조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전향적인 제시안을 낼 때가 됐다” 라고 압박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관련 사용자 측이 제시한 2항이 여전히 전환배치에 조합이 협력한다고 읽히는 부분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요구 관련 취업규칙 번역이 중요함에도 사용자 측 제시안에서 이를 삭제한 점을 꼬집고 “쟁점을 좁히기 위한 고민을 해달라” 라고 주문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사용자 생각과 조합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라며 “30년 후에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알겠나. 68개사 공통 의견을 모으려면 융통성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다 맞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 라고 요청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10차 중앙교섭을 6월 18일 경주에서 진행한다.